

현대차·한국지엠, 실적 괴리... 임단협 잠정합의안 '온도차'

현대차 2분기 매출 30조 사상최대 기본급 7.5만원 등 1500만원 인상
한국지엠 7년연속 적자... 누적 5조 기본급 3만원, 일시격려금 450만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번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이 이번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국내 완성차 만형인 현대차가 가장 먼저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의 향후 임단협의 방향도 결정지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완성차 5개사별로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현대차와 한국지엠이 잠정합의를 이끌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 '같지만 다른 느낌'

두 회사의 잠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격차가 큰 건 사실이다. 현대차의 잠정 합의의 경우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자사 주식 5주, 주간 연속 2교대 20만 포인트(20만 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현금분 1380만 원에 100만 원 상당의 자사주와 상품권 등을 더하면 1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현대차 노조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정년 연장 과해고자 복직 등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임은 확실하다.

반면 한국지엠 노조는 3만원의 기본급 인상과 일시 격려금 450만 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한국지엠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과 10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잠정 합의안이다.

기아 노조 또한 현대차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미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던 한국지엠 노조는 두 시간 동안 부분과업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정년 연장 역시 이 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외투기업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경우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차-기아차와는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미래협약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해야 된다. 현대차마저 노조가 정년 연장 과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으나 사측의 '수용 불가' 원칙에 따라 잠정합의안에서는 최종 제외됐다.

◆ 2분기 최대 매출 vs 적자 5조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현대차와 한국지엠만 놓고 봤을 때 두 회사의 재무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난에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매출 30조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시장 판매가 크게 늘어난 테다 고급브랜드인 제네시스와 S



한국지엠 부평공장 직원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형 SUV 모델인 트랙스를 생산하고 있다.

UV 등 고급모델의 판매가 증가한 덕분이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8.7% 증가한 30조3261억원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역시 1조886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9.5% 증가했다. 2014년 2분기에 기록한 2조872억원 이후 최고 기록이다. 물론 올 하반기 자동차 반도체와 계절적 영향으로 3분기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의문이다.

반면 한국지엠은 아직 100% 정상화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2018년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한국GM은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이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19와 올해 차량용 반도체 칩 수급 차질에 따른 감소로 인해 많은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해 신차 출시를 통해 경영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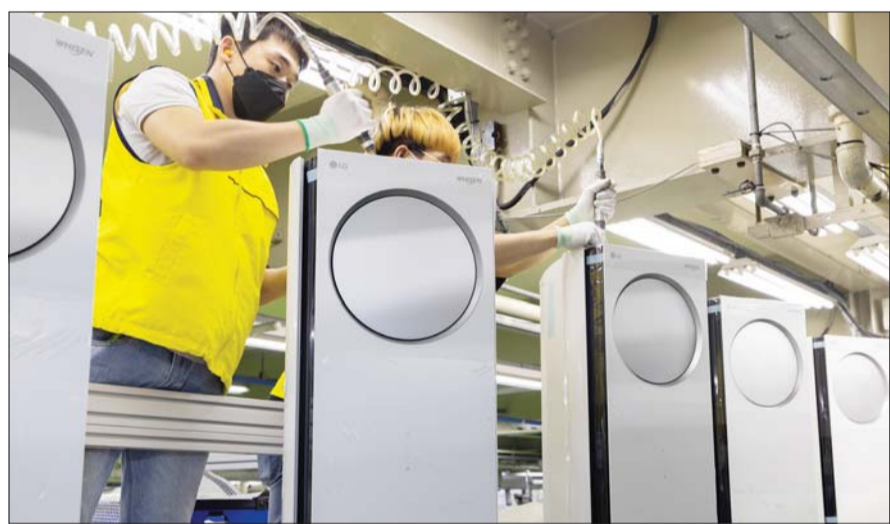
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나,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며 3169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7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으며, 누적 적자금액만 5조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대승적 노사 화합으로 미래 기약해야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선택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현대차의 노사 협상 결과가 타사 교섭 진행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품사 대표들은 노조가 현대차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흑 파업의 빌미가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중 현대차가 가장 빨리 잠정합의에 다다른 것은 코로나 19와 반도체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한 것으로, 3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라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냈다. 한국지엠 또한 1차례의 부분과업은 있었지만 현대차에 연이어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기아와 르노삼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기아의 경우 노사가 각종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르노삼성도 지난 22일 석달 만에 10차 분교섭을 재개했지만 임정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승적 노사 합의가 여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에어컨 생산라인인 풀가동

LG전자가 폭염으로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중이라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생산라인에서 올해 출시한 휘센 태워 에어컨을 생산 중이다. 사진은 LG전자 창원공장 휘센 태워 에어컨 생산 모습. /LG전자

LG전자가 폭염으로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중이라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생산라인에서 올해 출시한 휘센 태워 에어컨을 생산 중이다. 사진은 LG전자 창원공장 휘센 태워 에어컨 생산 모습. /LG전자

LS전선, 동해 사업장 해저케이블 확장

1859억 투입, 오는 10월 착공

LS전선이 강원도 동해 사업장에 약 1,859억 원을 추가 투자, 해저 케이블 사업을 확장한다.

LS전선은 25일 동해 제 2사업장 내에 국내 최대 높이의 전력 케이블 생산타워(VCV 타워)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착공, 2023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이를 통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생산 능력은 1.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 172m의 초고층 VCV 타워 건립으로 케이블 절연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명호현 LS전선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해저 케이블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라며 "국내 투자 확대에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등의 지역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LS전선 관계자는 "추가 투자 지역으로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사업장도 검토했으나 강원도와 동해시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 정책 등으로 동해시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LS전선은 2008년 동해시에 국내 최초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약 3,400억 원을 투자, 해저 케이블 전문 공장으로 육성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말 지급

관련예산 총 6조1930억 확정
희망회복자금 내달부터 지급

소상공인들이 올해 7월부터 입은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방역조치 수준이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집합금지 이행사업체는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영업제한 이행사업체는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8월 중순부터 각각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처내 관련 예산이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당초 4조8376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1조3554억원 늘어난 액수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4034억원이 늘어 1조263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해당법 공포일인 7월 7일부터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한다.

정부가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께 세부지침 고시된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손실보상은 7~10월 사이 3개월치가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 전체 지원대상 70%인 13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이다.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예산 1조5000억원) ▲영업제한(2조6000억원) ▲경영위기(3000억원)로 나뉘어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집합금지(장기)의 경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20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이다. 영업제한(장기)은 매출 4억원 이상의 경우 9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각각 나눠준다.

또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업종으로 정해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례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400만원, 매출이 2억~8000만원 사이면 40~60% 줄어든 업종에 대해서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전자, 더 프레임 TV 85형 출시

삼성전자더프레임이 80형대로 크기를 키운다.

삼성전자는 26일 더 프레임 85형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한국시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로 판매한다. 국내 출고가는 669만원이다.

이에 따라 더 프레임은 32형과 43형, 50형과 55형에서 65형, 75형, 85형

까지 대형 라인업까지 대폭 확대하게 됐다.

더 프레임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액자처럼 활용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TV로, '아트스토어' 기능을 통해 전 세계 40여개의 유명 박물관·미술관이 제공하는 1500점이 넘는 예술



삼성전자 더 프레임 85형.

/삼성전자

작품을 4K QLED 화질로 감상 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